



대학주보

초유의 부정투표 사실로...확운위 '선거 무효' 가결 '퀘스트' 선본 징계 확정, 해당 선본원 징계는 미정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오승현 기자 dirk0212@khu.ac.kr

【서울】KHU:EST(퀘스트) 선본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안건이 지난 4일 제2차 임시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에서 가결됐다. 퀘스트 소속 선본원이 무용학부관 기표소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투표한 사실이 공개된 지 일주일 만이다.

지난 4일 열린 제2차 임시 확운위는 총학생회 선거 '당선 무효' 안건을 찬성 68표(71.6%), 반대 11표(11.6%), 기권 16표(16.8%)로 가결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퀘스트 선본원의 부정투표 사실을 확인해 퀘스트 당선을 보류하고, 이후 당선 무효 안건을 확운위에 상정했다.

부정투표는 총선거 2일 차인 지난 25일 오후 1시경 발생했다. 무용학부관 기표소 선관위원이 기표소를 잠시 비운 사이 퀘스트 선본원 A 씨가 무용학부 유권자 명의로 17건의 투표를 대리 행사했다.

이후 명의를 도용당한 무용학부 소속의 B 씨가 투표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투표권이 이미 행사됐다는 이유로 투표를 할 수 없게 됐다. B 씨는 지인이 소속된 Knowhow(노하우) 선본에 이를 알렸고, 노하우

는 개표날 이를 중선관위 측에 전달했다. 이날 개표는 예정 시간보다 2시간가량 늦게 시작했다. 당시 중선관위원회 측은 개표 지연 사유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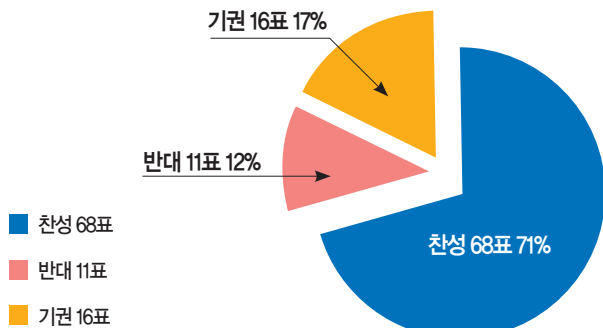
이후 무용학부관 기표소 부정투표 사실이 공개되자, 중선관위는 기표소 촬영 CCTV 전수조사를 지난 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진행했다. 조사 결과 경영대 기표소에서도 선거기간 3일 동안 오전 11시 45분부터 오후 1시 15분까지 선관위원이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투표가 발생했던 무용학부관 기표소에는 첫째 날에도 선관위원이 오전 중에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추가 부정행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강진(무용학 2023) 무용학부 선관위원장은 "(부정행위가 일어난) 당일에는 무용학부 3학년의 공연일이었기 때문에 학생회 인원이 선관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업무가 동일 시간대에 몰리며 관리 공백이 생기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선관위의 미흡으로 선거의 신뢰성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향후 선관위원 인력을 확충하고 운영 체계를 명확히 인수인계하겠다"고 밝혔다.

4일 열린 임시 확운위에서 각 총



② 선거 무효 안건에 대한 확대운영위원회 투표 결과



①제58대 총학생회 현장 투표 기표소. ②제2차 임시 확대운영위원회 투표 결과, 찬성 68표(71%)로 선거 무효가 가결됐다. (사진=이서현 기자)

학생회 후보 선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엄규민(경영학 2020) 위원장 대독을 통해 입장문을 밝혔다. 노하우는 입장문을 통해 "우리학교 학생사회의 신뢰를 침해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당선 무효와 재선거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다. 퀘스트 후보

자·선본원, 선거 관리를 책임진 선관위원에 대한 징계도 요청했다. 퀘스트는 "구성원들께 죄송하다"면서도 "해당 사안이 당선 무효까지 이어질 근거는 세척상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부정투표를 저지른 퀘스트 측 선

본원과 당시 기표소에 부재했던 무용학부 선관위원에 대한 징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엄 중선관위원장은 "세척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관련 규정이 불명확해 선거법이나 학칙을 준용해야 한다"며 "징계 방안은 추후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인정보가 도용돼 투표권을 빼앗긴 무용학부 학생들은 사건의 정확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 C 씨는 "내 표가 도용됐다는 사실을 처음엔 실감하기 어려웠다"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고, 당사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D 씨는 "일부의 위법행위로 무용학부 전체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며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마음이 크다"고 심경을 밝혔다.

서울캠 총학생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총학 보궐선거는 내년 3월경 진행될 예정이다. 재투표나 재선거는 시행되지 않는다.

'선거 무효' 관련 4개 단위 인터뷰 >> 2면
현행 선거 관리 방식 점검 기획 >> 3면

'میم'처럼 소비되는 혐오, 내 안의 극우를 깨우다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내안의극우' ①
극우란 무엇인가, 일상속 극단적 정서

최근 청년들의 일상 언어와 정서에서는 '농담'과 'میم'의 형태로 혐

오와 조롱이 오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타인을 향한 배제와 적대의 감정이 자연스러운 표현이 됐다. 이번 연재 기획은 우리 안에 내재된 혐오의 감정이 어떤 구조와 환경 속에서 형성되고, 이것이 어떻게 개인의 언어 · 정서 · 행동에 스며드는지 알아본다. 나아가 청년 극우화 현상과의 관련성을 짚어 본다. 1화차에서는 청년 일상 속 '극단화'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며, 무심코 내뱉는 말과 가벼운 농담 속에 숨어 있는 감정의 흐름을 알아봤다.

"'틀딱', '분탕'도 일베 용어였어? 전혀 몰랐네요..." A 씨는 자신이 쓰던 표현의 출처를 뒤늦게 알고 적잖이 놀랐다고 한다. 친구들과끼리 가볍게 쓰던 단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롯된 혐오 표현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사례는 낯설지 않다.

지난 3월 연세대 복지국가 연구센터와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1%가 극우 성향으로 분류됐다. 놀라운 것은, 극우 성향으로 분류된 20대(28%) 응답자가 70세 이상(2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타인을 배척하는 '극단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A씨처럼 별생각

없이 오간 가벼운 말들이 모여 어느새 배제와 혐오의 일상을 채우면서다.

극단적 말과 행동이 습관이 되면서, 이는 사회를 바라보는 하나의 지향점으로 작용한다. 개인의 정서와 언어 습관이 국수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극우 성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4면에 계속 →